

Original Article

녹용이 처방된 보약을 복용한 101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유사라, 손창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만성피로클리닉

Survey Analysis of 101 Subjects Using Herbal Medicine with Deer Antler

Yoo Sa-Ra, Son Chang-Gue

Clinic for Chronic Fatigue Symptome in Du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To build a basis of strategy for development of herbal drug as a preventive medicine during dynamic innov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Methods: Via telephone interview, 101 subjects prescribed with deer antler were asked to provide us their reflections about five topics: points of satisfaction, physical improvement, improved symptoms, annual times of taking restorative herbal medicine, and aspect of complaints about taking the herbal drugs.

Results: Around 68% of subjects usually take a restorative herbal medicine with deer antler less than once per year. 63% of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herbal restoratives. They answered the physical energetic feeling (52%) as the most benefit while expensive price (43%) as the most frequent complaint.

Conclusion: Scientifically designed restorative herbal medicine needs to be developed for competitivenes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s a preventive medicine. In addition, more reasonable price and confirmative data for safety and quality control should be equipped in Korean Oriental medical market.

Key Words : Deer antler, herb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survey

서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 의학적 의료와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의학적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¹⁾. 따라서 대체의학을 비롯한 한약의 생약관련 개발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 예로서 세계 건강보조

식품 시장은 2001년 1,501억불에서 2007년도에는 10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한편, 한의학에서 한약의 처방은 매우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위치를 차지하여왔으며, 특히 보약의 처방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주요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건강보험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약제제가 전체 처방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한약의 처방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3,4)}. 마찬가지로, 보약에 대한 전문적인 한의사의 치료영역으로서의 역할이나

· 접수 : 2008년 2월 14일 · 채택 : 2008년 3월 6일
· 교신저자 : 손창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9진료실
302-122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36 번지
(Tel:+82-42-470-9481, Fax:+82-42-470-9005,
Email:ckson@dju.ac.kr)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B070031)

기대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의학적 이론에서 질병은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모두가 치료를 해야 하는 병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상이 급하고 강한 실증에 비하여 완만하고 미약하게 나타나는 허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약의 개념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유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처방되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다^{5,6)}. 그러한 배경이 예방적 측면에서의 중요 수단으로 발전하고 보편화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체계적인 연구나 발전이 부족하였다. 향후, 보약은 질병이 아니라하여도 더욱 건강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인체의 허약한 부분을 도와 인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도하여 생명력을 높이는 의학으로 발전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동안 몇 가지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한방영역에 대한 인식조사는 있어왔다⁷⁾. 그러나 아직까지 보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만족도와 인식의 경향 등을 조사한 기초 연구조차도 전무하였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 약물처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향후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영역의 발전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될 보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약의 범주에 속하는 녹용이 가미된 처방을 투여 받은 101명의 환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에 답한 것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주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05년 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15일 사이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만성피로클리닉을 찾아 녹용이 처방된 보약을 드셨던 282명 중에서 설문 답변에 응한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51명, 여자 50명이었고, 연령은 14세부터 81세 까지였으며 그 중간나이는 41세였다.

2. 연구방법 및 통계처리

보약을 드신 후의 종합적 만족도, 신체적 호전도, 주요 호전된 증상, 연평균 보약 복용횟수 및 보약 복용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구성된 5개 항목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하였다. (Table 1). 대상자에게 대답 방법을 미리 설명한 이후에 5개의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질문 항목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하거나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 항목 중 신체적 호전증상에 대한 조사는 매우 신체적 호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 하였다.

101명 각자의 대답을 개인별로 정리하여 답변 항목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 간의 비교분석, 요인 분석, 상관성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Table 1. 설문 내용과 답변 선택.

1. 년 평균 보약 복용횟수 (단일선택)	1회 미만, 1회, 2회, 3회 이상
2. 보약 후 종합적 만족도 (단일선택)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3. 복용 후 신체적 호전도 (단일선택)	매우호전, 호전, 잘 모름, 별무호전
4. 복용 후 주요 호전증상 (복수선택)	피로 회복, 체력 증가, 식욕 개선, 정신 안정
5. 보약 복용 시 불만사항 (복수답변)	비싼 가격, 효과부족, 복용불편, 안전성 의문, 약물산지 의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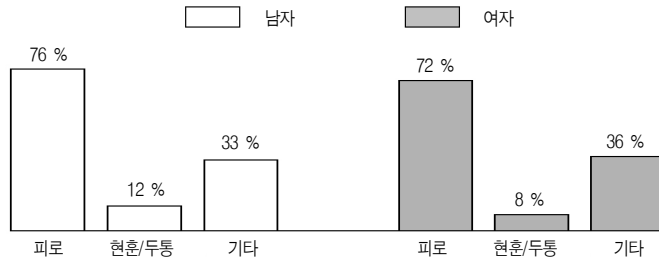


Fig. 1. Main symptoms of 101 subjects when they visit clinic.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 환자들의 특징과 내원 당시 주요 증상

대상자들의 평소 보약을 복용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년 1회 미만이 26%였고 1회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2회가 31%였고 2%만이 3회 이상이라도 대답을 하였다. 대상자들이 본 클리닉에서 보약을 드신 평균 횟수는 1.4 회였는데, 1회를 복용한 사람들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가 13명, 3회가 7명, 4회와 5회가 각각 2명과 한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간이 34개월이었으므로 본 클리닉에서 년 평균 보약처방 횟수는 1회 미만이었다.

본 클리닉에서 사용된 주요 처방은 대보탕 (41%), 익기보혈탕(19%), 지황탕(14%), 팔물탕 (12%)이었고 녹용을 가미하여 처방하였으며 약값으로 지불한 평균 가격은 35만원 이었다. 내원

당시 호소한 주요 증상은 피로, 현훈, 두통, 식욕 부진, 잦은 감기, 만성 해수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76%와 여자의 72%가 피로를 주요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Fig. 1)

2. 보약 복용 후 만족도와 호전증상

101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보약의 복용 후 본인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6%는 매우 만족하다고 답하였고 47%는 만족한다고 답을 하여 63%는 보약의 복용 후 만족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에 해당하는 2명만이 대답하여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36%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남녀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남자가 71%로서 여자의 52% 보다 높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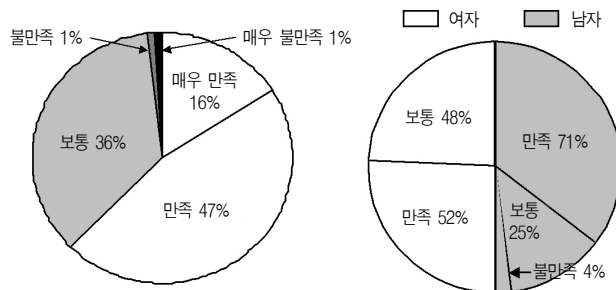


Fig. 2. Satisfactory rate for using restorative herb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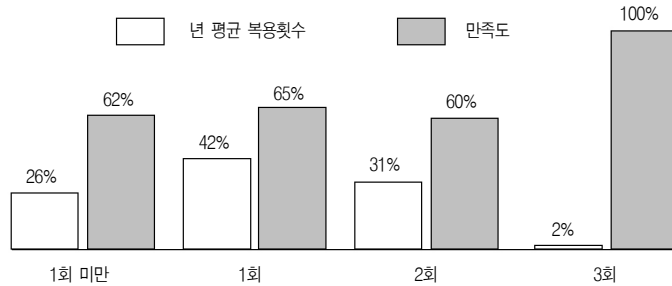


Fig. 3. Satisfactory rate according to frequency of using restorative herbal medicine.

대상자들의 평소 보약을 복용하는 횟수와 만족도와와의 상관성을 비교해본 결과 1회-3회 복용한다고 대답한 모두가 대략 60-65%의 만족도를 대답하여 특별한 상관성이 없었다. 3회 이상 복용한다고 답한 2명은 모두 만족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너무 적은 숫자로 인하여 특별한 상관성의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며, 다만, 보약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도의 차이가 잦은 복용과 높은 만족도를 추측할 수는 있다고 하겠다. (Fig. 3)

3. 보약 복용환자들의 주요 호전증상과 불만사항

대상자들이 복용 후 신체적으로 호전됐다고 대답한 비율은 매우 호전이 8%, 호전이 46%, 잘 모르겠음이 41%, 별무호전이 6%였다. 앞에서 보약 복용 후 만족도에서 63%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여기서는 54% 만이 신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적인 호전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증상들이 좋아졌는지 설문하였더니 체력증가(52%), 피로감소(26%), 식욕증가(16%), 정신적 안정(7%) 순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주로 보약이 전통적으로 체력을 보강시킨다는 개념과 매우 비슷한 결과라고 하겠다. (Fig. 4)

한편, 보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평소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에서는 비싼 가격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30%였고 약물의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도 15%를 차지하였다. 약효에 대한 대답은 14%였고 22%의 대상자들은 불만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Fig. 5). 이러한 결과는 보약을 복용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보약은 비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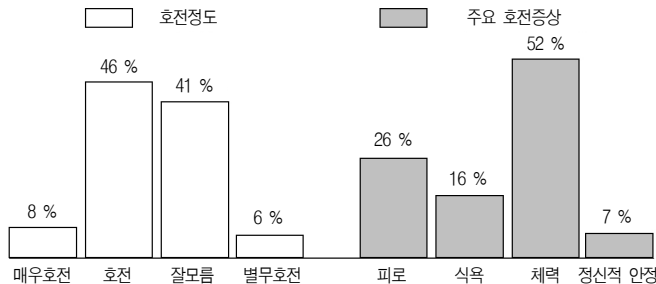


Fig. 4. Rate of physical benefit and its main symp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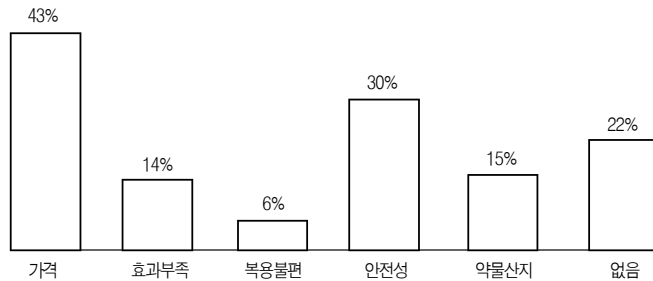


Fig. 5. Main complaints from user of restorative herbal medicine.

인식과 최근 한약에 대한 안전성이나 약물의 원산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예방의학적 보약의 전문화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의 향상이나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의료적 욕구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8,9)}. 또한 고도화된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피로와 두통처럼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효율을 해치는 주관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구가 매우 늘어가고 있다. 특히 피로 증상은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약 10% 정도가 경험하는 매우 보편화된 증상으로 전통적으로 한방진료 중에서도 보약 이용자들 주요한 증상으로 여겨왔다¹⁰⁻¹³⁾. 본 조사에서도 약 75%의 대상자들이 피로를 주요 증상으로 내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약을 복용한 이후에 이에 대한 만족도는 약 63%였는데, 남자(71%)이 여자(52%)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약을 복용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에 불과하였으나, 보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하였다.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지불한 비용이나 시간 및 기대치와 효과를 비롯한 받은 서비스의 모든 결

과가 함께 나타는 것이고, 불만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효에 대한 불만(14%)보다 비용(40%)이나 한약재의 안전성(30%), 혹은 약물 산지(15%)에 대한 높은 불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약물의 개발이나 사용에 있어서 약효 이전에 안전성이나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한약의 처방, 특히 보약의 처방에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한의계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약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조사연구가 있었는데, 향후 정부나 한의계의 이에 대한 실천이 따라야 하겠다.

보약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녹용은 보혈강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고가의 한약으로 처방 된다^{14,15)}. 본 연구는 녹용이 첨가된 보약을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전화설문에 응답을 수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통한 조사가 아니라 단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한약의 가장 대표적인 보약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고가로 처방되는 녹용을 처방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객관

적인 통계를 제시하였다는데 이미가 있다고 하겠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보약의 이용 가능한 인구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데이터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결론

본 연구는 녹용이 처방된 보약을 복용한 101명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보약의 이용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보약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가격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과학적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도 있었다. 본 연구가 향후 보약의 예방의학적 한의학의 역할을 넓히는 연구에 하나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Ventegodt S, Kandel I, Merrick J. Quality of life and philosophy of life determin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over research findings from the Quality of Life Research Center, Copenhagen, 1991-2007. *Scientific World Journal*. 2007;7:1743-51.
2. 2004년 수출입 동향보고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2005.
3. 한방산업진흥정책 개발.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05
4. 한.양방협력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의료발전기획단, 2006
5. 장준혁, 김갑성.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3;14(1):305-25.
6. 김광중, 박용익. 한방건강증진분양에 대한 사회의식 및 실천형태조사연구, 대한한의학회

- 지. 1998;19(2):468-84.
7. 주창엽, 허태석, 한동하,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알레르기 질환 및 한방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4):565-73.
8. Young MK, Wood M, Jean-Noel N. Postherpetic neuralgia in older adults: culture, quality of life, and the use of alternative/complementary therapies. *Holist Nurs Pract*. 2007;21(3):124-34.
9. Hurny C, Heusser P, Bernhard J, Castiglione M, Cerny T. Does non-conventional complementary therapi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Schweiz Med Wochenschr Suppl*. 1994;62:55-63.
10. 윤방부, 이혜리, 곽기우, 이영진, 이홍수, 오미경. 한국 개원의(일차진료)의 진료내용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1989;10(8):1-15.
11. 이지현, 박신명, 승현석,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피로를 호소하는 외래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1;22(3):299-307.
12. 전상복, 오태환, 정승기, 이형구. 무기력 및 피로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0;11(2):80-92.
13. Jones JF, Maloney EM, Boneva RS, Jones AB, Reeves W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al therapy utilization by people with chronic fatiguing illnesses in the United States. *BMC Complement Altern Med*. 2007;257-12.
14. 천진미, 이아영, 전원경, 추병길, 이혜원, 김홍준, 김호경. 한약재 품질관리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6;27(2):111-21
15. 고병희, 김광호, 송일병. 사중 녹용(鹿茸)의 면역학적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1991;12(1):84-100.
16. 吳世淳, 淳學仁 녹용이 기아, 백서, 간장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6;8(2):80~1:111-121.